

공급절벽, 정비사업 뚝... 건설사 '수주가뭉'

서울 분상제 시행 직격탄
이달 일반공급 153가구 뿐
하반기 정비사업 감소 전망
해외 수주도 7년만에 최저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절벽과 정비사업불량 감소, 해외수주 급감으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내 건설사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 의해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 들면서 일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해외수주마저 대폭 감소해 '수주가뭉'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5년 76만5328가구에서 지난해 48만7975가구로 급감했다. 올해 1~7월 누적 물량 역시 22만9026가구에 불과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택지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민간택지에 분상제가 적용되면 현

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져 공급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절벽은 현실화되고 있다. 분상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 이달 나오는 아파트 일반분양분은 단 153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95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92% 급감한 수치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은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 시행으로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물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인하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사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

체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경우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외주사업이나 공공사업 등 다양한 사업구도를 통해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주액 역시 7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외수주는 1월 56억4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37억2000만달러, 3월 18억2000만달러, 4월 17억9000만달러로 3개월째 감소했다. 5월 들어 18억3000만달러로 소폭 증가한 후 6월 13억2000만달러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해외 수주액이 7억달러에 그쳤다.

신규 발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텃밭으로 불려온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경우 각국이 공사 발주량을 크게 줄여가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사업개척 및 상품다양화 등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e편한세상 시티 광고' 오피스텔 투시도.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 광고' 분양전시관 오늘 개관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시티 광고' 오피스텔 분양전시관을 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일원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21~49㎡, 450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21㎡타입 196실 ▲30㎡타입 12실 ▲39㎡타입 162실 ▲49㎡타입 80실로 원룸부터 주거용 2룸까지 갖추고 있다. 광고신도시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최종심 입지인 센트럴다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시티 광고의 사이버 분양전시관과 오프라인 분양전시관을 동시에 개관하며, 사이버 분양전시관의 경우 e편한세상 시티 광고 홈페이지 내에서, 입지나 상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준비해 공개한다.

오프라인 분양전시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분양전시관은 4일 개관해 14일까지 운영되고, 사전 방문 예약기간은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e편한세상 시티 광고의 청약일정은 8~9일 청약을 접수한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정연우 기자

카카오게임즈, 큰손은 50대... 노후자금도 투자

삼성증권 청약금 28% '50대'
고객수로는 40대가 가장 많아



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에서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평가됐던 카카오게임즈의 '큰손'은 50대였다. 삼성증권에 물린 청약금액의 28%가 50대 투자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청약증거금으로 들어온 23조원 중 50대가 약 6조4400억원으로 28%를 차지하며 연령대별 1위에 자리했다. 40대(5조2900억원·23%)와 60대(5조600억원·22%)가 뒤를 이었다.

인당 청약금액은 대체로 연령대와 비례했다. 70대가 3억7000만원, 60대가 2억8000만원, 50대가 1억9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은퇴 후 노후자산관리 성격의 자금도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 수로는 40대(28%)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4%)와 30대(24%)가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열풍을 입증하듯 온라인 청약고객 비중이 81%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10억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청약한 큰손 온라인 고객도 1231명에 달했다. 10억원 이상 청약한 전체 고객 중 33%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청약 첫날

이던 1일 접속자 폭주로 온라인 청약 서비스를 약 20분간 중단하기도 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지연되며 일반 주식 거래를 위한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을 정도다.

그래도 중장년층 이상 고객의 직접 선호 현상은 여전했다. 전체 고객의 청약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여전히 지점을 통한 청약 비중이 37%에 달했다.

저금리 국면에 치진 보수적 자금의 증시유입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후 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은행계좌를 지정한 고객 비중이 12%에 불과했다. 환불금의 88%에 달하는 자금은 여전히 증권시장에 남아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편 삼성증권은 카카오게임즈 청약 열기에 힘입어 전날 기준 리테일예탁 자산 2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00조를 돌파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44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카카오게임즈로 인한 신규자금은(청약고객의 8월 신규입금 기준) 5조9000억원으로 26%에 달했다. 신규고객도(청약고객 중 8월 중 신규고객) 2만6000명으로 전체 청약고객의 19%를 차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올 6조늘어 총 51.5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진출한 미래에셋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글로벌 ETF 순자산은 올해만 6조원 넘게 증가해 51조5000억원(432억8000만달러)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ETF의 해외 진출 초기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한국 '타이거(TIGER) ETF' 11조원, 미국 '글로벌(Global) X' 15조원, 캐나다 '호라이즌(Horizon) ETFs' 12조원, 호주 '베타셰어즈(BetaShares)' 10조원을 비롯해 홍콩 글로벌 X는 최근 운용자산 1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ETF 리서치 업체 ETFGI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미래에셋 글로벌 ETF는 전 세계 운용사 중 순자산 규모 16위를 기록 중이다. 연초 이후 자금순유입 규모도 10위권을 차지했다. 8월 말 기준 약 47조원인 국내 ETF시장 합계보다 순자산 규모가 크다. /송태화 기자

SK건설, 화성·파주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 본격가동

화성 1호 최대규모 SOFC 발전소

SK건설이 친환경 분산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건설은 현존 최고 효율의 아시아 최대 규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발전소인 화성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고 파주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화성연료전지 발전소는 SK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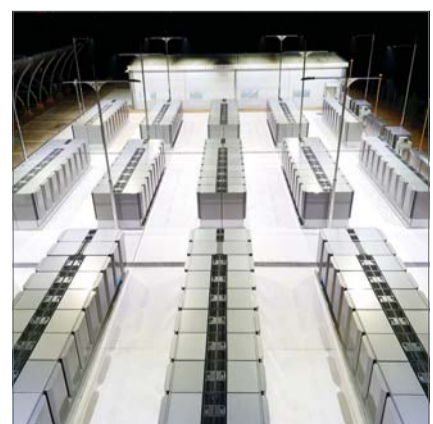
설과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해 경기 화성 장안면 노진리 일원에 7017㎡ 규모로 조성됐다. 이 발전소는 SOFC 발전소로는 아시아 최대인 19.8MW 규모이며, 95%의 높은 이용률과 연료전지 중 최고 수준인 56% 효율로 연간 16만5000MWh의 전력을 생산해 인근지역 약 4만3000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414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275억원을 SK건설(15.2%)과 남동발전(84.8%)이 지분 투자했다. SK건설이 설치 및 시공을 맡았으며, 지난

해 7월 착공해 올해 5월 공사를 마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2040년 4월까지 약 20년간 운영된다.

이 사업은 SOFC 발전사업 중 국내 최초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의미가 크다. SOFC 발전에 관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블룸에너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윈 팀 오피레이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겠



파주 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SK건설

다"며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 판로도 크게 확장하는 동반성장 롤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